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학생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생회는 매 학기 학생회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학기에 사용한 설문지의 형식과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에 대해 토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설문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우리 부서에서 통계를 낼 때 보니 뒤 번호의 문항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문지의 문항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닐까요?

학생 2: 모든 선택형 문항에 같은 번호로 답하거나 서술형 문항에 장난스럽게 응답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설문지에 설문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기명이다 보니 학생들이 성의 없이 설문에 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3: 저는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도 모두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 기존의 설문지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생 1: 설문지 문항 수를 줄인다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 설문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서술형 문항은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2: 학생들이 설문 조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설문 목적과 의의를 밝히는 문구를 설문지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에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판도 익명보다는 실명으로 이용할 때 학생들이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나요?

학생 3: 저는 문항을 각 활동별로 묶어서 구성하되 먼저 참여 여부를 묻고, 참여한 학생만 해당 활동의 세부 질문으로 넘어가는 단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시된 방안들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2: 선택형 문항 수를 줄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서술형 문항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문항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묻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기존의 질문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3: 설문지에 설문 목적이나 의의에 대한 문구를 넣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명을 기재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학생 1: 실명 기재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것은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일단 ①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해 보고 후속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토의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A ~ C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설문 대상자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군.
- ② A에서 '학생 3'은 응답자의 참여 태도가 설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군.
- ③ B에서 '학생 1'은 설문 조사의 실시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B에서 '학생 2'는 설문지의 형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군.
- ⑤ C에서 '학생 2'는 다른 학생이 대안으로 제시한 설문지 형식에 동의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군.

2.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남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이어질 화제를 안내하여 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의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다.
- ④ 제시된 의견을 요약하며 후속 토의를 안내하고 있다.
- ⑤ 토의 참여자의 발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3. 다음은 ㉠의 일부이다. 위 토의를 바탕으로 이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회 활동 만족도 조사 설문지

다음은 학생회가 실시하는 설문 조사입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1. 인적 사항
()학년 ()반 (남/여)

4.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참여했습니까?
① 예 (4-1번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요 (5번으로 가십시오.)

4-1.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2. 학생회 주관 축구 대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학생회 주관 수요 콘서트에 참여했습니까?

- ① 1번 항목에 실명 기재란이 없는 것을 보니, ‘학생 1’과 ‘학생 3’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학생 2’와 ‘학생 3’의 공통 의견을 반영한다면, 안내 문구에 설문 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학생 1’과 ‘학생 2’의 공통 의견을 반영한다면,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설문지에 서술형 문항 수를 늘려야겠군.
- ④ 4번 항목에서 참여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를 안내한 것을 보니, ‘학생 1’과 ‘학생 3’의 공통된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학생 2’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4-2번의 질문은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문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제시해야겠군.

[4 ~ 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하게 된 ○○○입니다. 요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가리키며)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마크를 본 적이 있나요? 마크에 쓰여 있는 ‘HACCP’는 ‘해썹’이라고 읽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해썹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체크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과학적인 위생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5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냉동식품, 병과류 등을 비롯한 7개 품목군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그 외 품목이나 업소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고 있죠.

업체가 해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과 유통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완료한 업체에 한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해썹 인증을 해 줍니다. 한 번 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니 해썹 마크가 있는 제품과 업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더 신뢰할 수 있겠죠?

해썹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지만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그 의미나 의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해썹 적용 품목이나 업소가 확대될 것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먹거리의 과수꾼이라 할 수 있는 해썹 마크,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②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대상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③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발표를 인상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5. 위 발표를 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7개 품목군 외에 확대 적용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② 우리나라가 해썹 인증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 ③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④ 인증을 받기 위한 12개 단계의 위생 관리 체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⑤ 재인증을 위해 3년마다 거쳐야 하는 갱신 절차는 최초 인증 절차와 동일한가요?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문 상황]

- 글의 목적: 스포일러 문제를 비판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
- 예상 독자: 학급 학생들

[학생의 초고]

자신이 보려던 영화의 결말을 누군가 말해 버려서 속상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 방송, 소설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관객이나 시청자, 독자들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나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스포일러라고 한다. SNS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최근에는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다음에 벌어질 상황이나 결말을 알지 못할 때 긴장감과 흥미를 느낀다. 따라서 그들이 의도치 않게 스포일러를 접하게 되면 흥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에는 오디션이나 경연 대회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누가 우승자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스포일러를 당하면 시청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물론 ([A])

누리꾼들은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한편 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처럼 제목을 꾸며 놓고 클릭을 유도해서 중요한 내용을 공개해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포일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는 아닌지 한번 더 의심하고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도적인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누리꾼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스포일러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우리들은 문화 콘텐츠의 향유자로서 스포일러의 폐해에 관심을 갖고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학생의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 ④ 도입부에서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⑤ 화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7. <보기>의 조건에 따라 작성한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반론-재반론'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 비유의 방법을 활용할 것.

- ① 프로그램 제작자가 왜곡된 정보를 예고편에 의도적으로 넣어 스포일러를 하기도 한다. 이유는 시청자가 방송을 보았을 때 예상이 빗나가면 더욱 큰 재미를 느끼기 때문이다.
- ② 스포일러는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시청률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적절한 스포일러는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해 시청률을 높이는 달콤한 미끼가 되기도 한다.
- ③ 스포일러가 홍보 역할을 하여 오히려 시청률 증가에 기여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시청자뿐만 아니라 제작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④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자유는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 ⑤ 시청률의 하락은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시청자들은 스포일러 때문에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8.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의 초고'를 보완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가) 신문 기사

영화 전문 예매 사이트 ○○가 2,322명의 누리꾼을 대상으로 스포일러에 대한 ㉠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화 관람에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73%였고, '스포일러도 리뷰이므로 상관없다.'라는 응답이 27%였다. 단, '상관없다'고 응답한 누리꾼도 ㉡ 스포일러 가능성 여부를 글의 제목에 미리 밝혀 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 전문가 인터뷰

㉢ 스포일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자신도 모른 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수치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고, ㉤ 악의적인 스포일러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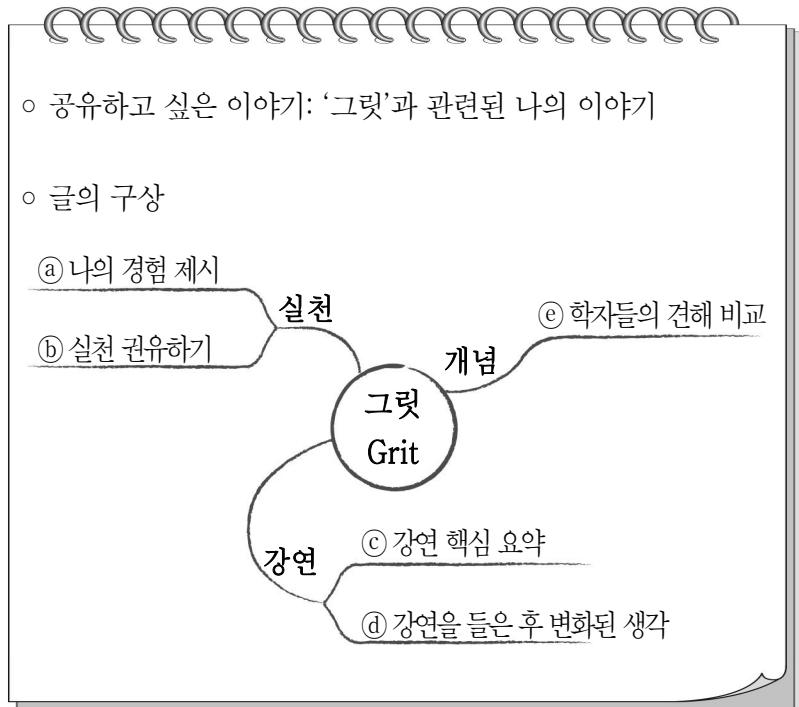
- ① ㉠의 결과를 첫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에 대한 누리꾼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다.
- ② ㉡의 의견을 넷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추가하여 제시한다.
- ③ ㉢의 내용을 셋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자신의 행위가 스포일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려운 이유로 제시한다.
- ④ ㉣의 사실을 셋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스포일러의 의도성과 비의도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 ⑤ ㉤의 정보를 넷째 문단에서 활용하여 의도적인 스포일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보자.

[작문 일지]



[초고]

작년 겨울, 천재들만 받는다는 맥아더 펠로상의 수상자 ‘엔젤라 더크워스(Angela Duckworth)’의 강연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강조한 것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인 ㉠ 그릿(Grit)이었다. 특히 그녀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릿을 향상할 수 있으며, 그릿이 높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역설했다.

짧은 강연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후 나는 ㉡ 그릿에게 빠져들었고 관련 서적을 찾아 읽어 보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일화를 들으며 그들의 재능을 부러워하기만 했다. 그리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주변의 막연한 충고는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그런데 강연을 통해 그릿의 효과와 그릿 향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후,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열정을 퍼붓는 사람들의 끈기에 ㉢ 주목시키게 되면서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 그러나 나는 포기하려 했던 기타 연습에 다시 몰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소소한 성취감도 느끼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즐겁기까지 했다.

베토벤이 되지 못할 바에는 음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답은 당연히 ‘아니요’다. 베토벤이야말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불태운 그릿의 결정체임을 잊지 말자.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면 ㉤ 떠올리고,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노력했으면 좋겠다.

9. '작문 일지'에 기록한 내용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그릿이라고 주장했다’로 바꿔야겠어.
- ② ㉡: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릿에’로 수정해야겠어.
- ③ ㉢: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목하게’로 고쳐야겠어.
- ④ ㉣: 접속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래서’로 교체해야겠어.
- ⑤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그릿을’을 첨가해야겠어.

1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ㄷ], [ㄷʲ]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ㄷʲ]이 되는 현상.

<보기 2>

- 나는 벽에 ㉠ 붙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 날날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 발이랑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 홀이불을 덮고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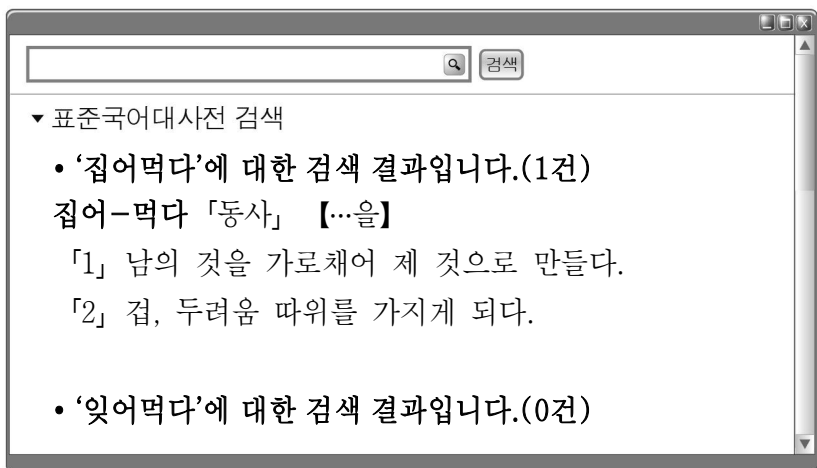
- ① ㉠의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날’의 받침 ‘ㅌ’은 [ㄷʲ]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 ③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발’의 ‘ㅌ’은 [ㄷʲ]으로 발음된다.
- ④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은 [ㄷʲ]으로 발음된다.
- ⑤ ㉤의 ‘홀-’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홀-’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12.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

유형	특징
본용언 + 본용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한다.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띄어 쓴다.
본용언 + 보조 용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고, 뒤의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합성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반드시 붙여 쓴다.

(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



< 보기 >

- 온순했던 청년들은 지레 겁을 ㉠ 집어먹었다.
-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 잇어 먹었다.
-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 집어먹었다.
-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 집어 먹었다.
- 그들은 서로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 잇어먹었다.

- ① ㉠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이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② ㉡은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③ ㉢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인 '그는'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 ⑤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쓴 것을 허용한 것이겠군.

13. <보기>는 '학습 활동'에 대해 짝토론을 한 것이다. ㉠ ~ ㉤에 알맞은 말을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학습 활동] 다음 문장의 짜임에 대해 알아보자.

그가 아끼던 제자가 상을 받았음을 그녀가 알려 줬다.

< 보기 >

- 학생 1: 어제 보았던 거꾸로 수업 동영상 강의에서 문장 속에 들어 있는 절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절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했지?
- 학생 2: 그래. 그리고 어떤 문장의 짜임을 이해하려면 그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 그럼, 먼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단어부터 찾아보자. 음..... '알려 줬다'와 '받았음' 이렇게 두 개인가?
- 학생 1: 아니야. '아끼던'도 서술 기능이 있잖아.
- 학생 2: 그렇구나. 그러면 그중에서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알려 줬다'이고, 그것의 주어는 (㉠)이겠지.
- 학생 1: 맞아. 그럼 '받았음'의 주어는 (㉡)이겠지?
- 학생 2: 응. 명사절이 문장 전체의 목적어 역할을 하며 안겨 있는 거지.
- 학생 1: 명사절 외에 관형절도 있잖아. 그러면 이 관형절의 주어는 (㉢)이겠지.
- 학생 2: 그래. 국어의 안은문장은 이렇게 여러 개의 안긴문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

- | | | | |
|---|-----|-----|-----|
| | ㉠ | ㉡ | ㉢ |
| ① | 그녀가 | 제자가 | 그가 |
| ② | 그녀가 | 그가 | 제자가 |
| ③ | 그가 | 그녀가 | 제자가 |
| ④ | 그가 | 제자가 | 그녀가 |
| ⑤ | 제자가 | 그녀가 | 그가 |

[14~1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에 의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도 주로 ‘-시-’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며, ‘-습-’은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습-, -습-, -습-, -습-’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에 의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仁義之兵(인의지병)을 遼左(요좌) | ㉠ 깃스븐니
[현대어 풀이] 인의의 군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 聖孫(성손)이 ㉡ 一怒(일노)하시니 六百年(육백년) 天下(천하) | 洛陽(낙양)에 ㉢ 올르니이다
[현대어 풀이] 성손(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육백 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 聖宗(성종)을 ㉣ 뵈셔 九泉(구천)에 가려 하시니
[현대어 풀이]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하늘히 駙馬(부마) 달애샤 두 孔雀(공작)일 ㉤ 그리시니이다
[현대어 풀이] 하늘이 부마를 달래시어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 ①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聖孫(성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선어말 어미 ‘-시-’와 ‘-이-’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의 주체와 청자인 상대방을 모두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윗글과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보기 1>

주체 높임에는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보기 2>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뵙고 왔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직접 높임	간접 높임		
①	×	○	○	높임
②	×	○	×	낮춤
③	○	×	○	높임
④	×	○	×	낮춤
⑤	○	×	○	낮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예술(藝術)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춤, 시, 음악, 건축, 회화, 조각 등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춤, 시, 음악은 ‘엔투시아스모스(enthusiasmos)’로부터, 그리고 건축, 회화, 조각은 ‘테크네(techne)’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다. 보통 ‘엔투시아스모스’는 ‘열광’, ‘열정’을 의미하고 ‘테크네’는 ‘기술’, ‘제작’을 의미한다.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 작품 창작의 기원으로 여겨졌는데, 예술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그 가치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왔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엔투시아스모스는 종교적인 행사에서 사제가 신의 메시지를 얻기 위해 신과 교감하는 열광적인 상태를 의미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상태가 사제뿐만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게서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몸짓, 언어, 그리고 멜로디와 리듬으로 감정과 충동을 표현하는 활동에 심취하여 사제를 통해 신과 교감하는 상태인 엔투시아스모스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서 춤, 시, 음악이 ㉠ 나왔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테크네는 신적 존재와 무관한, 인간이 무엇인가를 제작할 때 발휘되는 지적 능력을 의미하였다. 즉 테크네는 정해진 규칙 체계를 준수해 가며 수행되는 의식적인 지적 제작 능력을 지시하는 말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테크네를 발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건축, 회화,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건축은 실물을 제작하는 활동이라고 여겼던 반면 회화와 조각은 실물을 모방하는 활동이라고 여겼

다. 또 회화와 조각이 실물의 모방이기 때문에 이 모방은 실물의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왜곡을 사용한 모방, 즉 환상의 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당시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취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적 세계의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으로 보았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그는 엔투시아스모스를 인간이 '이성'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롯된 예술을 인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특히 ㉠ 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인간에 의한 소산이라기보다는 신과의 교감에 의해서 얻은 메시지에 가까운 것이므로, 인간의 '이성'과는 더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톤은 현실 세계의 본질인 이데아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현실 세계는 이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데아보다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플라톤은 테크네를 발휘하여 이루어진, 현실 세계에 대한 모방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을 취했는데 회화와 조각에 대한 비판이 대표적이다. 당시 고대 그리스인들과 마찬가지로 플라톤도 건축은 현실 세계의 실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는 회화나 조각은, 이데아를 모방한 현실 세계를 한 번 더 모방한 대상이므로 현실 세계 그 자체보다도 더 낮은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 두 번째 모방의 과정에서 왜곡을 통한 환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회화와 조각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적 관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플라톤 이후 예술에 대한 다양한 담론 속에서 엔투시아스모스와 테크네는 다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특히 근대에 들어서면서 엔투시아스모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은 낭만주의였다. 왜냐하면 낭만주의는 예술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거부하고 감정의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엔투시아스모스가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신적 존재와 관련되어 강조되었다면, 낭만주의 시대에는 인간 자신의 상상력, 무의식 등과 관련되어 강조되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테크네의 가치는 사실주의에 의해서 부각된다. 사실주의는 현실 세계의 정확한 모방을 추구했기 때문에 환상의 제작이라는 측면을 제외한 테크네, 즉 정확한 이미지의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테크네의 가치를 중시하였다.

* 이데아: 인간이 감각하는 현실적 사물의 원형(原形).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초월적인 실재로서 사물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본질적인 원형.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플라톤은 이데아를 모방해서 현실 세계가 생겨난 것이라고 보았다.
- ② 고대 그리스인들은 테크네가 신적 존재와 무관한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 ③ 플라톤은 인간이 테크네를 통해서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악 작품과 회화 작품의 창작 기원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 ⑤ 고대 그리스인들은 종교 행사에서 행한 몸짓, 언어 등의 활동이 인간을 엔투시아스모스로 이끈다고 생각했다.

17.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표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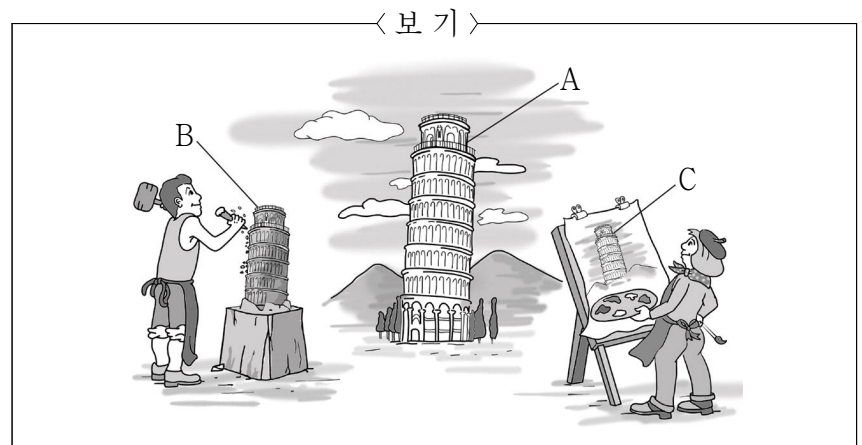
구 분	엔투시아스모스	테크네
고대 그리스인	㉠	㉡
플라톤	㉢	현실 세계를 모방하는 인간의 능력
낭만주의	㉣	
사실주의		㉤

- ① ㉠: 종교 행사에서 사제를 제외한 참가자들이 겪는 열광적인 상태
- ② ㉡: 인간이 규칙 체계를 따르며 행하는 제작에 필요한 지적 능력
- ③ ㉢: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 ④ ㉣: 인간의 감정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에 강조한 개념
- ⑤ ㉤: 정확한 모방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강조한 개념

18. ㉠에 대한 플라톤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창작의 기원	특 징
① 엔투시아스모스	인간의 의식적인 상상력의 산물임
② 엔투시아스모스	현실 세계와 동일한 내용이 표현됨
③ 엔투시아스모스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임
④ 테크네	현실 세계보다 더 낮은 가치를 지님
⑤ 테크네	교감을 통해 얻게 된 신의 메시지임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 C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대 그리스인들은 A, B, C 모두를 지적 능력의 소산으로 보았겠군.
- ② 플라톤은 A가 지닌 가치를 B, C가 지닌 가치와 다르게 규정했겠군.
- ③ 고대 그리스인들은 A, B를 실물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여겼겠군.
- ④ 플라톤은 B, C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⑤ 플라톤은 C가 A를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졌겠군.

20. 윗글과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세잔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의 외양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본질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묘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특정한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그 사물의 본질에 가까운, 거의 추상적인 형태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 ① 플라톤은 세잔과 달리 사물의 본질이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고 있군.
- ② 세잔은 플라톤과 달리 현실 세계보다 초월적 세계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군.
- ③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사물의 형태에서 유발되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군.
- ④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추상적인 묘사를 사용한 작품 창작에 대해 비판하고 있군.
- ⑤ 플라톤과 세잔은 모두 현실 세계의 사물에 대해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군.

21.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이 상품은 시장에 나온 후에 바로 큰 인기를 끌었다.
- ② 상대가 비열하게 나오면 우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 ③ 우리 학교 신문에 내 친구의 사진이 큼지막하게 나왔다.
- ④ 그녀는 방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 ⑤ 경기에서 상대에게 진 것은 욕심에서 나온 그의 행동 때문이다.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돈의 총량을 뜻하는 통화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적으면 심한 물가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업률, 이자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통화량을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통화량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금뿐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까지 통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통화량 파악이 복잡한 이유를 통화 형성 과정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자.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개인과 기업 등의 경제 주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창출된다. 이때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한다. 본원통화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된다. 예금은 경제 주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놓는 것이므로 이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 통화에 포함된다. 그런데 이 예금 중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인출에 대비해 지급준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대출된다. 예금의 일부가 대출되면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신용창조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1만 원이 시중에 대출될 때, 예금액 1만 원은 그대로 통화량에 포함되어 있는 채 대출된 1만 원이 통화량에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창조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본원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증가된 배수를 통화승수라고 한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던 현금이 은행에 예금되더라도 그 예금액만큼 시중의 현금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마다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 모두 동일한 통화로 취급하기 어려운 까닭에 통화량 파악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다양한 통화 지표를 만들어 통화량을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 지표는 2003년을 기점으로 양분된다. 앞 시기에는 ‘통화’, ‘총통화’, ‘총유동성’이라는 통화 지표를 사용했다. ‘통화’와 ‘총통화’에는 현금과 예금 은행의 금융상품들이 포함되었고, ‘총유동성’에는 여기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금융상품들이 추가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 IMF의 통화금융통계매뉴얼에 따라 ‘협의통화’, ‘광의통화’, ‘Lf(금융기관 유동성)’라는 지표가 사용되었다. 협의통화에는 현금뿐 아니라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포함된다.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고객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현금으로 바뀔 수 있기에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현금과 같은 지표에 묶였다. 광의통화는 협의통화에, 예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 중 이자 소득을 포기해야만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낮은 상품들까지 추가한 것이다. 여기에는 정기예금 등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들이 해당된다. 다만 이전 지표의 ‘총통화’에 포함되었던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은 유동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Lf는 만기 2년 이상의 저축성 예금 등 광의통화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까지 포괄한다.

보통 광의통화는 시중의 통화량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로 인정받고, 통화승수 역시 광의통화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협의통화는 단기금융시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Lf는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다. 이렇게 통화 지표는 통화량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효율적인 통화정책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 비은행금융기관: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

22. 밑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유동성의 의미
- ② 지급준비금의 용도
- ③ 통화량 파악의 필요성
- ④ 국가별 통화 지표의 종류
- ⑤ 우리나라 통화 지표의 변화

23. ㉠에서 강조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통화 지표에 맞도록 금융상품의 만기와 이자율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 ② 통화 지표를 변경하여 예금 상품들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③ 금융기관의 유형보다는 유동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통화 지표를 편제할 필요가 있다.
- ④ 현금과 예금 상품을 분리한 통화 지표를 만들어 새로운 통화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⑤ 경제 주체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화 지표를 다양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다.

24.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김 씨는 중앙은행에 사무 용품을 납품하고 받은 현금 100만 원을 A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A 은행은 이 예금 중 10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90만 원을 이 씨에게 대출했다. 이 씨는 대출받은 90만 원을 모두 B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B 은행은 이 예금 중 9만 원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81만 원을 박 씨에게 대출했다. 박 씨는 대출받은 81만 원을 모두 C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입금했다. 중앙은행이 김 씨에게 공급한 100만 원의 통화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

- ① 1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② 18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③ 2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④ 290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 ⑤ 371만 원으로 늘어나는 신용창조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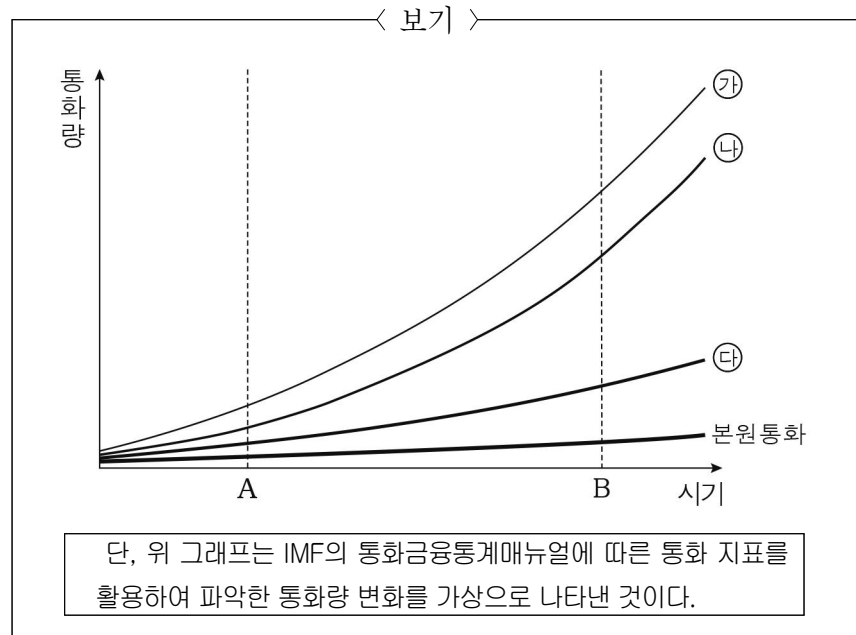
25.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과 같은 상황에서 ㉡의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공급을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 통화승수가 하락했다.

- ① 신용창조 활동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 ② 파생된 통화가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 ③ 본원통화가 줄어 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 ④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 ⑤ 지급준비금이 줄어 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26.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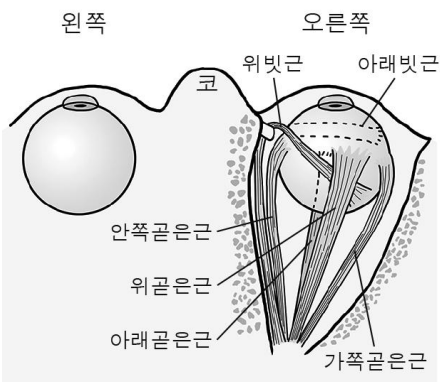


- ① ㉠에는 ㉡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하겠군.
- ② ㉢은 금융기관의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함하겠군.
- ③ ㉣에 비해 ㉠은 실물경제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하겠군.
- ④ ㉠이 ㉣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이 포함된 결과이겠군.
- ⑤ A와 B 시기의 통화승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본원통화 대비 ㉣의 통화량을 파악해야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의 사물을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눈의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물을 ㉠ **선명하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이나 머리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동자만을 움직여 일정 범위 내의 사물을 바라보거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계속 바라볼 때 안구가 움직여야만 물체의 이미지가 망막의 중심오목*에 안정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안구의 움직임을 ‘안구 운동’이라고 한다.

안구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그림]에서처럼 머리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주시하는 경우 눈돌림근육 6개가 1개의 안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런데,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만 위로 치켜뜨게 되면



[그림]

위곧은근이 수축되고 이에 ㉢ **상응하여** 수축된 정도만큼 아래곧은근은 이완된다. 또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눈을 흘겨 볼 때, 흘기는 방향과 같은 쪽 눈의 가쪽곧은근이 수축되고 그 수축된 정도만큼 그 눈의 안쪽곧은근은 이완된다.

한편 몸이나 머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머리나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안구가 움직이는데 이를 ‘전정안반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면에 거울이 있다고 하자. 거울에 비친 얼굴을 ㉣ **응시하면서** 고개를 위로 살짝 들어도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개를 든 각도만큼 안구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전정안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발생하는데,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안반사에 의해 두 눈의 안구의 아래곧은근이 수축되고 수축된 만큼 위곧은근은 이완되는 것이다. 거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안쪽곧은근이 수축되고 반대쪽 눈은 가쪽곧은근이 수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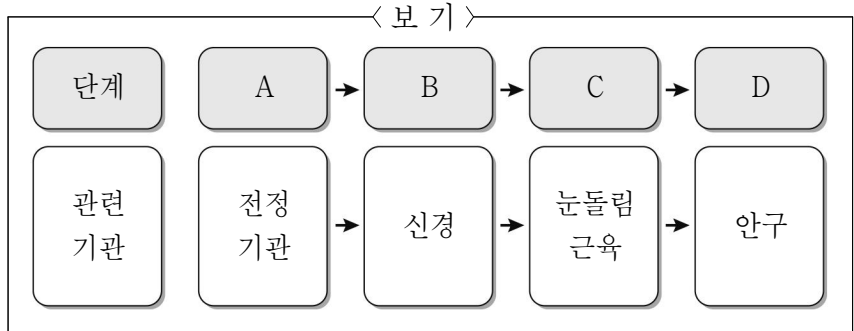
그렇다면 전정안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먼저 우리 몸의 전정기관*에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우리 몸이나 머리가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지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 귓속의 등근주머니는 수직 방향,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 **감지한다**. 또한 귓속 수평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 생성된 신호는 눈돌림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된다. [그림]에서 위빗근은 도르래신경, 가쪽곧은근은 갓돌림신경, 나머지 근육은 눈돌림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흥분 신호는 신경을 통해 눈돌림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 억제 신호는 눈돌림근육을 이완하게 만들면서 안구가 움직이게 된다.

* 중심오목: 망막의 가운데에 있는 누르스름한 반점의 한 부분.
* 전정기관: 속귀에서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2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정안반사는 안구 운동 중 하나이다.
- ② 사람의 한쪽 눈에는 6개의 눈돌림근육이 있다.
- ③ 사람이 움직이며 고정된 사물을 바라볼 때 전정안반사가 나타난다.
- ④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 ⑤ 수평반고리관과 전반고리관이 감지하는 머리의 운동 방향은 동일하다.

28. <보기>는 ‘전정안반사’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단계에서 흥분 신호가 생성된다면, C 단계에서는 눈돌림근육 중 일부가 수축되겠군.
- ② 몸이나 머리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A 단계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정기관은 등근주머니이겠군.
- ③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인다면, A 단계에서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가 생성되어 B 단계의 신경에 전달되겠군.
- ④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 C 단계에서 아래곧은근이 수축하여 D 단계에서 물체의 상이 망막의 중심오목에 맺힐 수 있겠군.
- ⑤ C 단계에서 위빗근이 작용하여 D 단계의 안구 운동이 발생했다면, 도르래신경이 전정기관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았겠군.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그림과 같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정면의 눈높이에 있는 작은 공을 계속 보면서 머리를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평 방향으로 약간 회전하였을 때, 오른쪽 눈에서는 (㉠)이 수축을 하고, (㉡)이 이완을 하며, 왼쪽 눈에서는 (㉢)이 수축을 하고 (㉣)이 이완한다.

(단, 오른쪽과 왼쪽의 기준은 의자에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 | | ㉠ | ㉡ | ㉢ | ㉣ |
|---|-------|-------|-------|-------|
| ①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 ②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 ③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 ④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 ⑤ | 가쪽곧은근 | 가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안쪽곧은근 |

30.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게
- ② ㉡: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되어
- ③ ㉢: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어
- ④ ㉣: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 ⑤ ㉤: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린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
 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

* 심의: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옷.

(나)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A]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B]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C]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C]

아픔이 출렁거리
 늘 말을 잃어갔다. [D]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D]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D]

- 문정희, 「찔레」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32.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逆說)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33.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도 반복되면서 현재의 화자가 느끼는 간절함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정서를, [D]의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랑’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님, 나오리께서 드십니다.”
문밖에서 삼월이 아뢰었다. 윤씨 부인은 순인(順人) 차렵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는다. 차렵이불의 갈매빛은 윤씨 부인의 병색과 더불어 우울하고 퇴색된 느낌을 준다.

최치수는 양 무릎을 모으고 앉았다.

“많이 편찮으신지요?”

눈빛을 감추며 시선을 방바닥에 떨어뜨린다.

“몸살인가 보다.”

윤씨 부인 역시 문갑 쪽으로 눈길을 보내며 대꾸했다.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A] “그럴 것 없다.”

“하오나,”

치수는 천천히 눈을 들어 윤씨 부인을 바라본다. 시선을 느낀 윤씨 부인도 아들의 눈을 마주 대한다.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이었다. 잠 못 이룬 탓인지 눈 가장자리에 달무리 같은 푸른 빛깔이 드리워져 있었다. 처연한 모습이다.

‘많이 늙으셨다.’

긴 눈매, 눈매 속의 눈동자만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의지와 힘이 사무친 듯 남아 있다. 머리 모양 옷매무새는 방금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게 단정하여 변함이 없다.

치수는 어머니의 흠어진 모습을 본 일이 없었다.

‘여전하시다! 언제나 저 모습, 저 눈빛, 대장간에서 수천 번을 두드려 만든 쇠붙이 같으다.’

치수는 자신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낀다.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신을 땀뿜었던 뜨거움은 싸아 소리 내며 가시는 것 같았다. 단련된 쇠붙이와 쇠붙이었다. 싸움터에서 적과 적의 칼이 맞닥뜨린 순간이었다. 쌍방이 혼신의 힘으로 겨루는,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 긴장은 두 모자 사이의 공간을 팽팽하게 메운다. 치수는 어머니의 뻘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느낀다. 대신, 보다 날카로워진 것을 피부로 심장으로 감득한다.

“요즘도 당산에 철포를 쏘러 다니느냐?”

“네.”

“힘을 과하게 써서 되겠느냐?”

“아니옵니다. 도리어 몸이 쾌적해지는 듯합니다.”

“.....”

윤씨 부인은 아들로부터 눈길을 거두었다. 치수는 햇빛이 부신 것처럼 눈 언저리를 좁힌다.

“뵈은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으로 혼자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남의 이목도 그러하거니와 서희에게 어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두어졌던 윤씨의 눈이 치수에게 쏠린다. 치수는 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한번도 생각해본 일이 없는 결혼문제를 어찌 입밖에 냈는가. 치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다.

㉠ “너 생각이 그렇다면 규수를 구해야겠지.”

‘왜 반대하지 않으십니까, 어머니님.’

“그렇지, 서희에게도 어미는 있어야겠구나.”

‘그럴 리 있겠습니까. 서희에게 당치 않는 흑이 하나 생길 뿐이지요. 서희에게는 유순하고 글이나 읽으며 소일할 신랑감이 필요할 뿐이지요.’

서울 가서 병을 얻어온 후 어머니에게 조석으로 문안드리는

치수의 관습은 생략되어 왔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회피였었고 피차 부담을 덜어준 일이기도 했었다. 치수는 아직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얼마만큼 되는지, 일 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몇 석이나 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속박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의식적으로 그런 일에 무관하려 했고 그만큼 윤씨로서는 보다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셈이요,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그 굴레는 무거울수록 윤씨 부인이 원한 바였었는지 모른다.

무당 월선네는 칼을 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다. 꽃갓과 무복이 펄럭거렸다. 징소리 북소리가 요란했다. 월선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며칠 몇 밤이었다. 별안간 월선네는 칼을 집어던지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마님!”

할머니는 당혹했다. 눈을 깜박거리며 월선네를 내려다보았다.

“아썬 절로 가셔야겠습니다.”

[중략 줄거리] 윤씨 부인은 의도치 않은 혼외 자식을 비밀리에 출산하려 절에 가게 된다. 어린 치수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다가 어머니가 돌아오는 날을 맞이한다.

이듬해 이월달 꽃바람이 부는데 어머니는 가마를 타고 돌아왔다. 치수는 미친 듯이 마을길까지 쫓아가서 가마를 따라왔다.

“어머님!”

마음이 급하여 가마를 따르며 불렀으나 가마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가마가 내려지고 어머니가 뜰에 나섰을 때, 치수는 그 얼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백랍(白蠟)으로 빛은 사람 같았다. 모습은 그렇다치고 어머니가 자기를 보는 순간 한발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곳을 찾듯이 이리저리 뒤돌아보는 게 야닌가.

[B]

“어머님!”

불렀을 때 어머니의 눈은 불꽃이 튀는 듯 험악했다.

그토록 오랜 시일 이별하여 꿈에 그리던 어머니가, 그 동안 잘 있었느냐? 하며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어루만져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저럴 수 있는지 치수는 눈앞이 캄캄했다.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올린 뒤 별당에 들었고 별당 문은 꼭 닫혀진 채 해는 저물고 말았다. 이때부터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였다. 무슨 까닭으로 자애스럽던 어머니는 남보다 먼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치수의 소년시절은 어둡고 고독했다. 허약하여 본시부터 신경질적인 성격은 차츰 잔인하게 변하였으며 방약무인의 젊은이로 성장했다.

- 박경리, 「토지」 -

(나)

S#58. 안방(낮)

병색이 완연한 윤씨가 ㉠ 차렵이불을 덮고 누워 있다.

소 리 ㉡ 마님, 나오리께서 드십니다.

㉢ 윤씨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는다. 들어오는 치수 양 무릎을 모으고 앉는다.

치 수 ㉣ 많이 편찮으신지요?

윤 씨 몸살인가 보다.

치 수 문 의원을 불러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 씨 그럴 것 없다.

치 수 하오나.....
 윤 씨 장암 선생께서는 요즘 차도가 있으시더냐?
 치 수 어려우실 모양입니다.
 윤 씨 근자에 가 뵈었더냐?
 치 수 못 가 뵈었습니다.
 윤 씨 그래서야 쓰겠느냐?
 치 수 사냥을 떠나기 전에 가 뵈어 문안올리고 오겠습니다.
 윤 씨 산으로?
 치 수 예.

모자의 눈이 부딪친다. 열을 뿜다 서로의 눈이 싸늘히 굳어진다. 치수의 두 눈에서 O.L*

S#59. 마당(회상)

김 서방 사랑채로 뛰어오며,

김 서방 도련님. 마님이 오십니다.

치 수 어머니!

어린 치수 버선발로 토방을 건너 뛰어 마당에 내려선다.

치 수 © 어머니!

대문계로 뛰어간다.

S#60. 대문 앞(동. 회상)

당도한 가마에서 내려선 윤씨. 얼굴빛이 밀랍처럼 창백하다. 치수를 보는 순간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윤씨.

치 수 (놀라서) 어머니.

불꽃이 이는 듯한 윤씨의 두 눈.

*O.L: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

- 박경리 원작, 이형우 각색, 「토지」 -

34. (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과장된 행동을 통해 비극적 분위기의 반전을 꾀하고 있다.

3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윤씨 부인의 '검은 점이 무수히 드러난 얼굴'을 통해 치수가 '어머니의 뺨치는 힘이 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낀 이유 중 일부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치수가 윤씨 부인과 '오랜 시일 이별'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고통스런 세월을 보내기 위해' '무거운 굴레를 둘러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③ '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강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통해 현재의 치수가 윤씨 부인을 '회피'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자애스럽던 어머니'라는 치수의 기억을 통해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과 재회한 후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어린 치수가 윤씨 부인을 '남보다 먼 사람'이라고 여긴 것을 통해 쌍방의 '숨결조차 내기 어려운 침묵'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군.

36. [A]와 [B]를 고려하여 (나)의 촬영 대본을 작성할 때,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감독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시나리오에 언급된 내용을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영화감독은 촬영 대본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연기, 의상, 소품, 녹음, 촬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기록된다. 이때 원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원작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하여 촬영 대본을 작성하기도 한다.

- ① ㉠: 시나리오에는 차렵이불의 색깔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갈매빛 이불을 소품으로 준비할 것.
- ② ㉡: 시나리오에 누가 대사를 할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작을 고려하여 삼월을 연기하는 배우의 목소리를 녹음할 것.
- ③ ㉢: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의 윤씨 부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 ④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을 고려하여 대사를 마친 후에 윤씨를 연기하는 배우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할 것.
- ⑤ ㉤: 치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원작과 같이 윤씨 부인을 향한 어린 치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다급한 어투로 말할 것.

37. ㉣에 나타난 '치수'의 태도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언부언(重言復言) ② 후안무치(厚顏無恥)
- ③ 두문불출(杜門不出)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 ⑤ 표리부동(表裏不同)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조선 시대에 자연을 노래한 시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시가(四時歌)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의 순서에 따른 완상을 담은 노래들을 뜻한다. 고려 중기 이후 사대부층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었는데, 사시가는 이러한 관심과 중국 한시 및 고려 한시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었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가는 1년을 열두 달로 나누어 각 달의 세시 풍속이나 정서 등을 노래한 월령체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월령체는 주로 민요에서 나타나는 데 비해 사시가는 한시나 가사, 연시조에서 주로 나타난다. 특히 각 연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했다.

일반적으로 사시는 사계절로 인식된다. 그러나 시간 인식의 기준에 따라 사시는 한 달의 네 때인 삭(朔), 현(弦), 망(望), 회(晦)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하루의 네 때인 아침, 낮, 저녁, 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초기의 사시가는 주로 사계절을 나열하는 단조로운 시상 전개를 보인다. 그러나 중기 이후의 사시가는 일년 사시와 하루 사시의 복합적인 구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즉 ‘[춘(아침→낮→저녁→밤)]→[하(아침→낮→저녁→밤)]...’과 같이 일년 사시의 흐름 속에서 각 계절마다 하루의 사시를 모두 포함하거나, ‘[춘:아침]→[하:낮]→[추:저녁]→[동:밤]’과 같이 일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된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기도 하는 것이다.

시상 전개 양상이 단순하든 복합적이든 사시의 흐름은 순차성을 띠면서도 의미상 겨울에서 봄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작품에 따라 순환성이 표면에 부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은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 즉 유한한 인간의 삶에서 무한을 추구하려는 소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적 영원성에 대한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장소로서 인간은 이상향을 지향하게 되는데 사시가에서 자연은 이러한 이상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시가에서 나타나는 이상향으로서 자연의 모습은 당대의 현실이나 작가의 삶과 관련되어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즉 속세와 단절되어 은자(隱者)로서의 삶을 누리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속세와 단절되지 않은 연장선상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가 벼슬에서 은퇴한 사대부이든 정치 흐름에서 도태되어 자연으로 돌아온 사대부이든 향촌에서 농민과 함께하던 사족(士族)이든 자연을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사시가는 사시 순환의 질서 속에서 자연을 심미의 대상, 소박한 삶의 공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 등으로 인지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생활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 사대부층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A]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 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추(秋)> -

가령, 사시가 계열 연시조의 첫 작품인 위 시조의 경우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가 강호 자연에서 계절별로 느끼는 흥취와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자연은 유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
 나는 그물 잡고 아희는 밧줄 가니
 뒷 뵈히 움이 튼 약초를 언지 캐려 흐느니 <1수>

삿갓에 도롱이 낚고 세우중(細雨中)에 호미 메고
 산전(山田)을 훑매다가 녹음(綠陰)에 누어시니
 목동이 우양(牛羊)을 모라다가 잠든 나를 깨우는구나 <2수>

대초불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뿔뜨르며
 벼 벤 그루터기에 게는 어이 느리논고
 술 닉자 체장스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3수>

피혀는 새가 굶고 들히는 갈 이 없다
 외로운 비에 삿갓 쓴 저 ㉡ 늙은이
 낙덕에 재미가 김도다 눈 김픈 줄 아는가 <4수>

- 황희, 「사시가(四時歌)」 -

(다)

양과(陽坡)*에 풀이 기니 봄 빗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 비에 다 되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먹여 논밭 갈게 흐야라 <춘(春)2>

잔화(殘花) 다 딛 후의 녹음(綠陰)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낮둠의 소릿로다
 아히야 계면조 불러라 긴 조름 썩오자 <하(夏)1>

흰 이슬 서리 되니 그을히 느껴 있다
 긴 들 황운(黃雲)이 흐 빛이 피었구나
 아히야 비준 술 걸러라 추흥(秋興) 계워 흐노라 <추(秋)1>

북풍(北風)이 노피 부니 앞 뵈히 눈이 던다
 모참(茅簷) 찬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콩죽 니것느냐 먹고 자려 흐로라 <동(冬)1>

이바 ㉢ 아희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현스한 세월(歲月)이 소년(少年) 앓아 가느니라
 우리도 새해 즐겨하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석(除夕)1>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양과(陽坡): 양지쪽 언덕.

38.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시의 순환성은 무한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 ② 유기적인 구조를 지닌 연시조는 사시의 흐름을 담아내기에 적합하다.
- ③ 사시가는 조선 시대 이전의 다른 문학 장르에서 영향을 받았다.
- ④ 사시가와 월령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을 취한다.
- ⑤ 사시가는 열두 달의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39. (나),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르는 말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승 이미지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점층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40. (가)를 바탕으로 (나),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직접 명시하고 나머지 수에서는 계절을 짐작하게 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일 년의 사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에서 <1수>부터 <4수>에 걸쳐 일 년 사시만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 초기 사시의 단조로운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③ (다)의 <하1>에서는 ‘녹음’과 ‘낮둡’을 통해 여름날 낮의 이미지가 제시된 것으로 보아 일 년 사시와 하루 사시가 대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다)의 <춘2>와 <동1> 각 수에서는 한 계절 안에 하루의 사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합적 시상 전개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⑤ (다)의 <제석1>에서는 ‘새해’가 음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자연의 순환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41. ㉠에 주목하여 [A]와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고기마다 살져 있다’에는 풍요로운 자연에 대한 사대부층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 ② [A]에서 ‘역군은(亦君恩)이샷다’에는 자연을 속세와 단절된 공간으로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인식이 드러난다.
- ③ (나)에서 ‘그물 잡고’, ‘산전을 훑매’는 모습에는 자연을 노동의 삶이 드러나는 생활 공간으로 인지하는 사대부층의 관점이 나타난다.
- ④ (다)에서 ‘계면조 불러라 긴 조롬 씨오쟈’에는 자연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드러난다.
- ⑤ (다)에서 ‘비즌 술 걸러라’에는 흥취를 느끼는 공간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사대부층의 생각이 나타난다.

4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화자와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 대상이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바를 이루어 주는 대상이다.
- ③ ㉠과 ㉡는 모두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가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고 ㉡는 화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는 대상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강씨 상서가 집에 없음을 기뻐하여 월을 불러 날로 구박하며 눈앞에 잠시도 쏘지 못하게 하고, ㉠ 음식을 먹이되 독약이 들지 아니하였으니 알고 먹으라 하며 박대가 자심한지라.

강씨 일일은 월의 없음을 괴히 여겨 후원에 가보니 차영을 데리고 서로 우는지라. 대로하여 고성 대책 왈,

“너희 노주*가 무슨 모함을 의논하느냐.”

하고, 무수히 치며 두 발을 끌고 의복을 찢으며 형벌하고, 또 차영을 잡아내어 꾸짖어 왈,

“네 나와 무슨 혐의 있어 노주 의논하고 흥계를 꾸미고자 하느냐. 너 같은 녀은 죽이리라.”

하고 형구 차려 형틀에 올려 매고 무수 난장하여 제정으로 끌어내어 협실에 가두고 분부하되,

“너희 다시 소저와 상대하는 자는 즉시 죽이리라.”

하니, 차영이 또한 기절하여 아무 말도 못하더라.

슬프다. 월이 차영을 보지 못하고 죽인들 뉘가 알며, 음식인들 뉘가 권하리오.

이때 용이 제 밥을 가지고 누이 앞에 놓고 간권하니, 소저가 어찌 먹고 살고져 하리오마는 어린 동생이 원하는 정을 생각하고, 또 부친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원귀 되지 아니하며, 또한 부친으로 하여금 비회를 끼쳐 눈물을 지시게 하리오. 나의 사생은 어렵지 아니하거니와 용의 일신이 부모에게 중한 몸이라. 내 죽으면 여액이 다 용에게 미칠 것이니 어찌하리오. 또한 내 죽으면 불효막대할 것이니, 근근 보명하였다가 부친 오심을 기다림이 옳다 하고, 용이 가져온 음식을 서로 먹고 밥을 당하매, 불기 없는 빈방에 남매 서로 붙잡고 밥을 새우더니, 용은 어린 것이라 잠을 자나 소저는 만신이 아파 견디지 못하여 소리는 아니하고 앓고 누웠더니, 이때 강씨 생각하되

㉡ “이때를 지내면 다시 설치*할 기회를 얻기 어려우리라.”

하고 월의 자는 방에 들어가니, 소저가 홀로 엎어져 앓는 소리 나거늘 문을 열고 들어가 꾸짖어 왈,

“이 아이년아, 누구를 모함하려고 누웠느냐. 너 같은 자식은 보기 싫으니 바빠 나가고 눈앞에 보이지 말라.”

하는 소리 추상같은지라.

[중략 줄거리] 강씨의 구박으로 어룡 남매는 집에서 쫓겨나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이후 어룡은 통천도사의 도움으로 도술과 무예를 배워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월은 윤 시랑의 양녀가 되어 임선과 결혼한다. 한편, 어룡 남매를 찾아 집을 나섰던 상서는 기이한 꿈을 꾀다.

이때 날이 이미 저물고 갈 길이 바야 없으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실혼한 사람같이 앓았더니, 또 비몽사몽간에 아까 보이던 도사가 다시 이르되,

“죽림 도원 본집으로 가면 자연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니 급히 황성으로 가라.”

하고 간 데 없거늘, 상서가 깨어 공중을 향하여 무수 사례한 후,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 길을 떠나 여러 날 만에 죽림 도원 ㉠ [본집]으로 가니, 집은 여구하나 장원이 퇴락하고 후뜰에 초목이 무성하여 사람 자취 그친 지 오랜지라.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여 눈물 내림을 깨닫지 못할래라.

학사 마음을 진정하고 두루 살펴보니 노복 등도 다 사냥하고 다만 차영이 홀로 있다가 상서를 보고 반겨 복지 통곡 왈,

“노야 어디로 다니다가 이제 오시니까.”
 하며 못내 슬피하다가, 다시 여쭙오되,
 “소저와 아기 용을 찾아 보아 계시니까.”
 하며 반김을 마지 아니하거늘, 상서가 차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차영아, 그간 몸 성히 잘 있었느냐. 난 여러 해 돌아다니되 월의 남매를 보지 못하고 왔노라.”
 하시니, 차영이 상서 말씀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이윽히 앉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왈,
 “그러하오면 어디로 가 죽었는가 아닌가. 진적 유무를 알 수 없으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사오리까. 노야 나가신 후에 나라에서 한림으로 패소*하여 계시오니, 황성에나 올라가사 소저와 공자를 찾게 하옵소서.”
 하거늘, 상서가 내심에 현몽하시던 일을 생각하고 황명을 받자와 택일 발행할새, 여러 날 만에 ㉞ **황정에** 득달하여 천자께 숙배하온대, 상이 보시고 크게 반기사 좌를 주시고 가로되,
 “경의 아들이 멀리 집을 떠난단 말을 들었더니 그간 만나 보았는가.”
 하시거늘, 상서가 복지 주왈,
 “소신의 불초한 자식이 있사옵더니, 나이 어려 우연 집을 떠나 나아가 우금 십여 년이 되옵되 종적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슬픈 빛이 나타나거늘, 상이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가라사대,
 ㉟ **“금번 북훈노 병란에 경의 아들 곧 아니어던 종묘와 사직이 위태하고 짐의 몸이 마칠 것을 하늘이 도우사 경의 영자를 만나 북적을 소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니, 그 공을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시고, 좌승상 어룡을 급히 명초*하시니, 이때 승상이 부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전지도지*하여 나오더니, ㊱ **나라에서 부르심을 듣고 급히 예궐 숙배하온대, 상이 인견하시고 가라사대,**
 “지금 경의 부친을 대하면 그 얼굴을 능히 기억할소냐.”
 승상이 대왈,
 “어려서 아버지를 이별하였사오나 지금도 그 형용이 주야 눈에 있나이다.”
 하고 설위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상이 그 사친지정이 절로 골수에 맺힘을 불쌍이 여기시고, 상서와 대면케 하시니, ㊲ **승상이 부친 앞에 나아가 엎어져 실성 통곡하며 말을 이루지 못하거늘, 한림이 혼미하여 꿈인지 생시인지 분별치 못하고 묵묵히 앉았다가, 이윽한 후 정신을 차려 용의 손을 잡고 가로되,**
 “네가 진정 나의 아들 용이냐 아니냐.”
 하며 안고 서로 슬피 우니, 보는 사람은 고사하고 산천초목도 다 슬피할러라.

- 작자 미상, 「어룡전」 -

* 노주: 노비와 주인. * 설치: 치욕을 씻음.
 * 패소: 임금이 신하를 급히 만나야 할 때 패를 써서 입궐하게 하는 경우.
 * 명초: 임금의 명령으로 신하를 부름.
 * 전지도지: 엎드리지고 곱드리지며 몹시 급히 달려가는 모양.

43.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⑤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룡전’은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을 다룬 계모형 가정 소설이다. 계모의 일방적인 구박과 횡포로 고통을 받던 전처 자식들은 가장이 부재한 시기에 가정에서 쫓겨난다. 이후 주인공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출세함으로써 가족과 재회하고 가정을 회복한다. ‘어룡전’의 특이한 점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군담 화소가 계모형 가정 소설에 결합되어 서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 ① ㉠: 전처 자식에 대해 계모의 일방적인 구박과 횡포가 가해졌음을 알 수 있군.
- ② ㉡: 가장이 부재한 시기를 틈타 전처 자식을 쫓아내려는 계모의 의도를 알 수 있군.
- ③ ㉢: 국가의 위기 상황이 주인공에게 출세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 주인공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군담의 화소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 주인공이 헤어졌던 아버지와 재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군.

45.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달리 ㉡는 ‘상서’가 기대감을 갖고 향하는 공간이다.
- ② ㉠와 달리 ㉡는 ‘상서’가 권위자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③ ㉡와 달리 ㉠는 ‘상서’가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나는 공간이다.
- ④ ㉠와 ㉡는 모두 ‘상서’가 타인에게서 정보를 제공받는 공간이다.
- ⑤ ㉠와 ㉡는 모두 ‘상서’가 타인에게 비판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